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 체 사 상

(력사적인 대외활동의 나날에)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주체106(2017)년

차 례

머 리 글 6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8

자주성이 제일 9

독창적인 안목, 해박한 지식 10

정연한 론리, 인민적인 문풍 12

즉석에서 주시는 명쾌한 해답 13

한치의 간격도 없이, 허물없는 대화 15

주체사상에 대한 굳은 확신 16

1. 인간의 운명개척과 주체사상 18

1) 주체사상창시와 그 정당성과 생활력 18

성장과정에 부닥친 두가지 문제 18

혁명투쟁속에서 검증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20

2) 주체사상에 대한 일반적리해 21

주체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위주의 철학 22

주체사상의 기초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 22

주체사상의 진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 23

주체사상의 요구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해 복무 23

3) 새롭게 밝혀진 인간의 본성 24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 24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 25

사람에게서 의식성은 중요한 속성 26
4) 사회와 혁명의 원리 26
사회적운동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진행 27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 27
5) 주체사상구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8
사상에서 주체확립 28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 29
자립적민족경제건설 30
국방에서 자위 실현 31

2. 조선혁명과 주체사상 33
주체사상에서 출발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 33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구현과 그 빛나는 승리 ... 34
1) 항일혁명투쟁승리와 새 민주조선건설 34
(1)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한 항일무장투쟁 34
주체적인 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 제시 35
주체적혁명력량의 강화 36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37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 38
(2) 해방후 조선이 나아갈 독창적인 길 39
새형의 민주주의, 조선식민주주의의 길 40
당건설은 가장 선차적인 문제 41
자기를 보위하는 정규적무력건설-조선인민군 43
제반민주개혁의 성과적인 실시 43
2) 조국해방전쟁승리와 전후복구건설 44
(1) 전민의 단결된 힘과 주체전법으로 승리한 조국해방전쟁 .. 44

작은 나라라도 굳게 뭉쳐 싸우면 승리 45
남의 식이 아닌 주체전법 46
(2)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준 전후복구건설 48
기본은 우리자체의 힘 48
인민대중의 힘 발동 50
자체로 양성한 민족간부에 의거 53
3)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53
(1) 주체를 내세우고 수행된 사회주의혁명............................ 54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 54
집단적혁신운동인 천리마운동발단......................................57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실현..................................59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61
(2)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의 주체사상의 전면적구현 61
사회주의공업국에로의 전변 62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방향-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64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실현 67
끄떡없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67
사회주의교육과 민족문화의 전면적개화 72
4)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74
(1)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리해... 75
조선통일문제의 발생근원은 미제의 남조선강점 75
조국통일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념원, 최대의
민족적과업 76
통일문제의 본질은 민족의 자주권확립 77
통일문제해결에서 기본은 외세의 간섭반대,
조선인민자체의 힘, 평화적방법 77
조선통일의 기본장애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 78

동서도이췰란드통일과 구별되는 조선통일문제 78
(2) 조선로동당이 내놓은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 81
남북총선거의 실시 81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3대혁명력량....................................82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 84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86
조국통일 5대방침 88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89
(3)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과 그 전망 90
7.4남북공동선언발표..90
락관적인 조국통일전망...92
(4)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강화...................... 94

3. 세계의 자주화와 주체사상...98
1) 현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 98
(1) 자주는 오늘날 세계정치정세의 특징 98
자주성의 시대..99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쓰는 자주의 세찬 흐름...................99
온 세계가 자주성을 요구 100
(2) 온 세계의 자주화는 시대의 기본추세, 인류공동의
위업 101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계의 공고한 평화, 새 사회에로의
넓은 길 101
유럽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에서의 자주화실현............102
반제자주력량의 단합과 행동에서의 일치강화 104
남남협조의 발전 105
(3) 세계인민들이 공감, 그들의 지향에 부합되는 주체사상 .. 106

2) 세계사회주의운동강화발전 108
(1)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단결 109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관계는 동지적 및 형제적관계 109
자주성의 원칙견지는 단결과 협조의 전제........................109
통일과 단결의 4가지 원칙..112
(2) 1990년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원인........... 113
근본원인은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것.........113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집권 114
사대주의, 대국숭배주의를 한 후과..................................116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 121
(3) 사회주의재건운동 122
평양선언의 발표 122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회주의 123
찾을 필요없는 모델 123
3) 뿔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124
세계정세발전에서의 뿔럭불가담운동이 노는 역할...........124
반제반식민주의의 튼튼한 성새...126
반제자주는 뿔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 근본원칙..........128
단결과 협조의 강화 129

머 리 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인류외교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외활동은 시대와 인류사상발전에 기여한 공적에 있어서 동서고금의 이름난 위인들의 활동과도 대비할수 없이 특출한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광범한 세계보도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대외활동소식을 널리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전기간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계 5 대륙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사들을 만나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자신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원리와 그 구현과정에 이룩된 귀중한 경험과 성과들에 대하여 정열적으로 해설해주시고 자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수행과 관련하여 하신 교시들은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내놓은 《**김일성**저작집》들을 비롯한 단행본들에 그대로 수록보존되여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은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 출판사들에서 번역출판되여 널리 보급전파되고 있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읽으면

서 오늘도 자주적인 삶을 개척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있다.

이 도서에서는 《**김일성**저작집》에 수록된 교시들가운데서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만나시면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그 실천적구현경험, 조선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와 관련하여 하신 교시내용들을 주제별로 묶어 편집하였다.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시대와 인류를 광명과 진보의 길로 이끄시는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이 지울수 없이 새겨져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 세기 세계혁명운동의 걸출한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우려 세계 5 대륙의 수많은 인사들이 조선을 방문하여 그이와 뜻깊고도 인상깊은 상봉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136 개 나라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당수 400 여명을 비롯하여 연 7 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을 만나 사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20 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경탄과 흠모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뛰여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20 세기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격찬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으며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출한 위인상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마냥 소중히 자리잡게 되였다.

세월이 흘러 21 세기 20 년대를 앞두고있는 오늘날에도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으로 조선과 세계를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사상가,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가운데서 극히 일부를 언

급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래에 서술하게 될 그이의 교시내용들을 리해하는데서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자주성이 제일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우며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것은 그이야말로 자주성을 제일로 내세우시고 자주적립장이 남달리 투철한 분이시라는것이였다.

그것은 그이께서 하신 모든 가르치심모두가 자주성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자주적대를 세워야 한다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만나시는 인사들마다 사람이 자주성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자주적립장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였다. 독립하기전에도 자주의 기치를 들어야 하지만 독립후에도 계속 들어야 한다는것, 자주는 사회의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야 한다는것,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그리고 더우기는 작은 나라일수록 당당하게 자주적존엄과 영예를 지켜낼줄 알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가 만연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던 지난 세기에 자주적대를 굽히지 말고 살아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생의 활력소로 되였다.

그러하기에 이전 부르끼나파쏘정부대표단을 데리고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운 단장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신념대로 일을 벌려나간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각하의 말씀을 통하여 절실히깨닫게 되였습니다.

실로 자주성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출로는 오직 자주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희들은 각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열쇠를 손에 쥐고 돌아갑니다.》라고.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성을 제일로 내세우시고 자주적립장이 매우 투철한 분이시였다.

독창적인 안목, 해박한 지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적립장이 매우 투철하시였을뿐아니라 독창적인 안목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신 탁월한 정치가, 그 어느 분야에서도 막힘이 없으신 다문박식하신 사상리론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화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언제나 독창적인 안목으로 대하시였다.

솔직히 말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제기한 질문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이전 시기에는 제기될수 없었고 또 그 누구도 언급하지 못하였던 생소한 문제들이였다.

여기에는 한 나라에서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포괄되여 있었다.

선행한 그 어느 고전에도 없었던 이러한 문제들, 새로운 사회력사적 환경속에서 도출되여나오는 생소한 문제들에 해명을 주자면 교조와 기존

관념의 낡은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분석력과 판단력을 지니시고 그처럼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모든 문제들을 명철하게 해부하시여 그 본질뿐아니라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서까지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늘 강조하신것은 서로 다른 사회력사적조건에서 진행되는 매개 나라의 혁명을 한가지 처방을 가지고서는 할수 없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따라서 기존공식에 매여달리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을 찾아내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안목을 가지시였을뿐만아니라 해박한 지식으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모든 사상과 리론들의 폭과 심도는 넓고 심오하였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을뿐아니라 심지어 매개 나라의 력사와 문화, 민족적인 생활풍습들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령역이 없었다.

그 지식의 폭과 심도는 실로 헤아릴수 없어 말그대로 그것은 하나의 대백과전서를 방불케 하였다.

제기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막히는데가 없으시였고 거침이 없으시였다. 드넓은 바다처럼 그 끝을 알수 없었고 파고들면 들수록 그 심도가 헤아릴수 없어 외국의 인사들은 그이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주석각하로부터 정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자신을 열성높은 <청강생>이라고 평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석각하께서 주시는 가르치심을 받고 정치사상적으로 많은것

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던 전 오스트리아공화국 수상이며 오스트리아사회당 명예위원장이며 국제사회당 부위원장인 부르노 크라이스키가 터친 진정의 목소리이다.

정연한 론리, 인민적인 문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담화를 나누실 때면 언제나 정연한 론리속에 인민적인 술어를 담아가시며 구수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들은 모두가 론리가 정연하면서도 일목료연한것이 특징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고 피부색과 언어, 력사와 민족적생활풍습이 각이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많은 외국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도 생활의 론리, 성격의 론리에 맞게 구수하게 대화를 끌고나가시여 그들의 안고있는 마음속고충을 대번에 헤아려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어려운 문제들이라하더라도 그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시고 그 해결방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은 외국의 인사들은 현실적타당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생활과 력사의 론리를 따라가면서 설득력있게 전개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면서 그이의 분석력과 판단력, 구사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든 말씀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도 쉽게 리해할수 있는 통속성과 생활성이 결합된 인민적인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대화를 하시면서 아무리 복잡하고 해부하기 어려운 사회

적문제들이라 하더라도 까다롭고 난해한 정치술어나 생경한 개념들이 아니라 구수한 력사이야기들과 평범한 생활사속에서 전개하시였으며 통속적인 성구와 속담들, 우스운 유모아들을 섞어가시며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였는가에 대하여서는 피델 까스뜨로가 터친 말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한가지 문제를 말씀하셔도 아주 풍부한 내용을 담아 알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를 그처럼 깊이있게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김일성동지는 저의 스승이시며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서반구에서 첫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운 권위있는 혁명가이며 《1 년에 400 일동안 말해도 지칠줄 모르는 다변가》로 세상에 알려진 다박다식가였던 그도 이렇듯 감탄을 금치 못하였던것이다.

세계진보적인사들 누구나가 커다란 흥분과 기대속에 그이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하여 환히 알게 되였으며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진정한 삶을 개척해나갔다.

즉석에서 주시는 명쾌한 해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우려 우리 나라에 온 인사들은 절대다수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을 안고있은 사람들이였다. 오래동안 고충하고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옳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불원천리 찾아온 사람들인것으로 하여 그들모두는 그이와의 접견을 간절히 요청하군하였으며 접견석상에서는 시작부터 그이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기탄없이 제기하였다.

지난 세기 70 년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려온 사회주의나라의 한 수반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이런저런 압력과 시비중상때문에 골을 앓고있다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숨김없이 터놓았는가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인사는 갓 독립을 이룩하였지만 옳바른 자기식 로선이 아니라 남의 식을 본딴 로선으로 하여 엄중한 후과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한탄하면서 조언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터놓기도 하였다. 지어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 정객은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립장을 듣고싶다는 간절한 요청을 드리기도 하였다.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간절히 요청하여 제기한 질문들은 어느 하나가 다같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심중한 문제들이였다.

참으로 심중하면서도 복잡한 질문들이였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신념이 차넘치는 확고한 의지와 명철한 분석판단력, 사리정연한 론리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즉석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군하시였다.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에 대하여 탄복한 이전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였던 안드로뽀브의 회상담의 하나를 소개하게 된다.

1982 년 어느날 그는 1963 년 1 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방문하였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쏘조관계가 제일 나쁠때 조선에 갔다왔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 당들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의 분석이 딱 맞아떨어진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김일성**동지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흠모한다.》라고.

한치의 간격도 없이, 허물없는 대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우려 온 사람들중에는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에 가담하여 죄를 지은 정객들도 있었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신조로 삼으면서 악선전에 동조한 인물들도 있었다.

비록 정치적신조와 경력은 서로 달리하고 지난 기간 잘못은 지었지만 그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였고 자그마한 간격도 두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수천수만리 머나먼 길을 헤치며 찾아온 그들의 심정을 속속들이 헤아려 넓으신 도량과 뜨거운 인품으로 그들모두를 언제나 친근하게 대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시였다.

《저는 지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온 세상이 우러르는 주석각하의 벗으로 될수 있단말입니까. 그것은 한갖 기자에 불과한 저에게 있어서 너무도 무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989년 당시 베이징주재 이딸리아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회사 지국장 일라리오 피오레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덕망에 감격하여 터친 그의 진정의 목소리였다.

그이를 만나뵈온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들은 해당 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뿐아니라 자신들과 가족들의 장래문제에 대해서와 식생활수준과 정도, 건강문제, 사는 형편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인정에 눈시울을 적시군하였다.

하여 그들모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접견한 순간부터 그이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굳은 확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사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해답을 주실 때면 언제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모든 문제를 해부분석하시고 결론을 내리시였다.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현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신 그이의 가르치심은 그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가다듬게 하였다.

온 세계가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남을 쳐다보고 그에 의존하게 되면 망하지만 자기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로 나가야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있다는것과 그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은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그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감동속에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나온 그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을 한몸에 체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주체사상이야말로 현시대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위대한 사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준 사상》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인사들의 결심과 의지는 하나로 지향되였다.

세계와 인류가 나아갈 길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이며 이 길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갈 길, 번영의 길이라는것이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인류의 세계적지향과 념원인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온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다음 세계 진보적인사들이 간직하게 된 확신이였다.

1. 인간의 운명개척과 주체사상

20 세기 30 년대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회와 력사발전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적 및 실천적문제들에 옳바른 과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여기에서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 어떻게 창시되였으며 그것이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게 된다.

1) 주체사상창시와 그 정당성과 생활력

주체사상은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장엄한 혁명투쟁실천속에서 창시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 년 10 월 6 일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과 하신 담화를 비롯한 여러 담화들에서 이에 대하여 대답을 주시였다.

성장과정에 부닥친 두가지 문제

주체사상을 가지게 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가 성장과정에 부닥친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기간, 특히 학생시절에 보고 느낀데서 가장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

고 싸움질만 하며 실지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있었던 사실입니다. 전체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만 혁명운동이 성공하겠는데 그 사람들은 대중과 리탈되여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권력싸움만 하였으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리론》싸움만 하였습니다. 그 《리론》이라는것은 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리론인것이 아니라 혁명사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궤변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밤낮 마주앉아서 론쟁만 하고 대중운동을 전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혁명을 성공시킬수 있겠는가고 생각하게 되였으며 그런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 헛소리만 치고있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혁명투쟁을 하도록 해야지 상층부의 몇사람이 모여앉아서 말공부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는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체에 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은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부닥치게 된 또하나의 문제는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신비성에서 나온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력쟁탈전에서 나온것인지 또는 사대주의에서 나온것인지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파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엠엘파, 화요파, 북풍회파를 비롯하여 파벌들이 많았습니다. 이 파벌들은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고 저마다 국제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자신이 공산주의운동을 잘하면 자연히 인정받겠는데 그들은 혁명운동은 하지 않고 삼인일당, 오인일파식으로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만이 《정통파》이며 진짜맑스주의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선공산당은 1928 년에 국제공산당에서 제명되였으며 구경은 당이

해산되고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선민족의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혁명운동을 잘하면 구태여 남에게 승인받으러 가지 않아도 자연히 인정받을것이 아닙니까. 남이 꼭 승인을 해야만 공산당이겠습니까.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혁명운동을 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자기가 혁명운동을 하고싶으면 하는것입니다. 자기가 똑바로 하기만 한다면 누가 승인하든 안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혁명을 잘하기만 하면 남들이 자연히 인정하겠는데 무엇때문에 남에게 승인을 받으러 다니면서 야단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에서 파벌투쟁이 심하고 또 상층부의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있었던 이 두가지 현상을 보고 혁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또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여야 하며 자기자신이 투쟁을 잘하면 남에게서 승인을 받고 안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우에서 말한 두가지 측면이 나의 혁명사상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한다는것, 누가 승인을 하든말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추진시켜나간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연히 동정도 받고 인정도 받고 도움도 받을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투쟁속에서 검증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나는 혁명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보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

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20 여년간의 간고한 투쟁을 벌렸으며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 년동안의 조국해방전쟁도 하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험난한 혁명의 진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또한 혁명투쟁과정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며 남에게 맹종맹동하지 않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다는 참다운 진리를 체득하였습니다.

2) 주체사상에 대한 일반적리해

1981 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나정부기관지 《가나타임스》 주필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도 체계정연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시였다.

여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람중심의 독창적인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본질과 진수, 기초와 요구와 관련하여 하신 교시내용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위주의 철학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라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속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방도를 가르쳐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줍니다.

주체사상의 기초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

주체사상은 사람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봅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 이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에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주적인 존재이므로 주위세계에 예속되여 사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면서 삽니다. 세계에서 자주성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으로 됩니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이므로 주위세계에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면서 삽니다. 세계에서 창조적힘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유일한 창조자로 됩니다.

주체사상의 진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기 운명에 대하여서도 주인으로 되며 또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주체사상은 결국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밝혀줍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 이것이 주체사상의 진수이며 여기에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요구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해 복무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합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대하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세계의 모든것은 사람에게 리롭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워야 하며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는 사람이며 세계의 모든것은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해서만 사람에게 리롭게 개조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것을 첫 공정으로 삼아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3) 새롭게 밝혀진 인간의 본성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성을 처음으로 새롭게 밝히였다.

사람에 대한 처음으로 되는 과학적인 해명. 바로 여기에 이전의 혁명사상과 다른 주체사상의 독창성이 있으며 그것을 창시하시고 전개하신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적예지의 비범성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데 대하여 1982 년 6 월 22 일 네팔 아르에쓰에쓰통신사 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언급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

자주성은 세계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입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주적인 존재로 됩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전에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을 시작할때부터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도 그 노래를 즐겨 부르고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꼭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여도 자유는 못버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예속되여 사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데 있겠습니까. 왜 지난날 사람들이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오늘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근로자들이 봉건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였으며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입니다.우리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도 우리 민족을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한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

창조성은 세계를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성질입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연과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창조적존재로 됩니다.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짐으로 하여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 됩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통일적으로 발현됩니다. 사람은 자주성이 있어야 창조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창조성을 발휘하여야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주성이 없으면 창조성을 발휘할수 없으며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짐으로 하여 세계의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특수한 존재로 되며 세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의식성은 중요한 속성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속성이며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모든 활동은 의식적인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의식성은 사람의 중요한 속성으로 됩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세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특수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됩니다. 다시말하여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유일한 창조자로 됩니다.

4) 사회와 혁명의 원리

주체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운동의 원리도 밝혀주고있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2년 6월 22일 네팔아르에쓰에쓰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과 여러 기회에

언급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진행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의 원리를 밝혀줍니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 이것은 력사의 중심에 인민대중이 서있으며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발전합니다. 사회가 운동발전하는 과정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며 사회발전의 동력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의 능동적활동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이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기초하여 사회가 발전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사회가 운동발전하는것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일어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에 의하며 추동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끊임없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사회가 개조되고 변화되여나가는것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입니다. 혁명에 의하여 낡은 사회관계와 사회제도가 개조되고 변혁되며 혁명투쟁과정에 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

아집니다.

… … …

혁명의 종국적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계급적 또는 민족적지배와 예속을 청산하여야 하며 사상, 기술,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완전히 없애고 사회관계와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로부터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요인도 그 나라 인민의 힘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5) 주체사상구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주체사상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천의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몇가지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시였다.

그이에 의하면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이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문제, 다시말

하여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간단히 말하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남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나가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며 무슨 일이든지 자기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기 나라 혁명에 리롭게 처리해나가는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인데 이것은 결국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

정치적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비록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다 하더라도 참다운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러한 나라는 또다시 다른 나라에 예속되기마련입니다.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독립된 나라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민족의 리익을 대표할수 없으며 독립을 고수해나갈수도 없습니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있을뿐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렬강들이 일으키려는 전쟁도 방지할수 있습니다. 매개 나라가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되고 큰 나라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큰 나라들이 싸움질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며 세계평화가 영원히 고수될수 있을것입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입니다. 매개 나라 인민

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채로 받아들이는것은 매우 해롭습니다. 이것은 마치도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먹어야 소화가 잘되지 씹지 않고 통채로 삼키면 소화불량증에 걸리는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어보고 속에서 받으면 넘기고 받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경험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주적인 존재로 되려면 자기 발로 걸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도 자주독립국가로 되려면 자기 발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남의 부축을 받아 걸어나가는것은 자유롭지 못하며 또 남의 부축을 받아가지고는 빨리 나갈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남에게 추종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으며 하고싶은 일도 할수 없고 하고싶은 말도 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려면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독립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제는 정치를 안받침하여줍니다. 자립적민족경제가 안받침됨이 없이는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을 통하여 검증된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가 정치적독립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입니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나라들에 정치적독립을 선사하지 않을뿐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에 경제적자립도 선사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신세를 지려고 할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길은 두 길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자체의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동원리용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실현하는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체의 힘을 믿고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교류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면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을뿐아니라 불공평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새 국제경제질서를 세울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실현

자주독립국가는 반드시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자위적 국방력이 있어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독

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국방건설분야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 원칙입니다.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자주독립국가는 반드시 적들의 침략을 물리칠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자위적인 국방력이 없이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보위할수 없습니다. 자위적인 국방력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담보로 됩니다.

2. 조선혁명과 주체사상

승리와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을 출발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령도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주체사상에서 출발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주체의 혁명적당이며 풍부한 투쟁경험과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로숙한 당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확한 투쟁목표와 혁명로선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우리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전과정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확증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구현과 그 빛나는 승리

우리 당은 조선혁명을 수행하는 전기간에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날 가난하고 뒤떨어진 식민지나라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1) 항일혁명투쟁승리와 새 민주조선건설

조선에서의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와 새 민주조선건설의 커다란 성과는 조선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일대 력사적사변이였다.

이 위대한 력사적사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과 그 지도적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1)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한 항일무장투쟁

1930 년대초엽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원조도 없이 진행된 참으로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였지마는 주체사상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추켜드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마침내 그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리아잡지 《져이슈 알 샤압》사 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을 만나주시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리신 주요 활동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여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언급하신 교시들가운데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강화하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추켜들고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도록 하신 교시내용들에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주체적인 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제시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앞에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으나 우리는 자체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함으로써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930 년대초에 우리 나라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았습니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로선이였으며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혁명로선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로선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피압박인민들이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하며 그 투쟁의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형태는 무장투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력사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으며 나라를 빼앗긴 인민들이 자기자신이 일어나 싸우지 않고 남이 가져다주는 독립을 얻은 사실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압박인민들이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민족의 참다운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철저히 버리는것이 필요합니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으며 해방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자기의 모든 권력기구와 폭력수단을 다 동원하여 류혈적으로 탄압합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조선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일어나 싸우지 않을수 없었으며 오랜 기간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벌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폭력으로써 반혁명적무력을 격파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해방투쟁경험은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규모의 투쟁으로 발전하며 마침내 승리를 이룩할수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주체적혁명력량의 강화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과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며 모든 유격대원들을 확고한 주체의식과 열렬한 애국주의사상,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자각적규률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적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통하여 적의 무장을 빼앗아 유격대의 군사장비를 강화하였으며 유격대오를 더욱 확대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군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항일유격대와 광범한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유격대를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도록 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 …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제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습니다.

항일유격대의 강화와 혁명의 대중적지반의 공고화, 항일무장투쟁과 여러가지 대중투쟁의 밀접한 결합, 이 모든것은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때에는 어데서 원조를 받을데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민족해방투쟁을 하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받고있지만 그때에는 지금과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기를 비롯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제놈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과정에 부닥친 여러가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은것은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투쟁하였기때문입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체의 힘,인민대중의 힘뿐이였습니다. 우리는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을 비롯하여 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적에게서 빼앗거나 인민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습니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

우리가 몇몇 동지들과 함께 얼마 안되는 무기를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의 힘은 미약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가리켜 《창해의 일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제는 우리를 보고 넓은 바다속의 좁쌀알만한 력량을 가지고 어떻게 대일본제국을 반대하여 싸우겠는가고 비웃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악선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의 위협공갈과 기만선전에 굴하지도 속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고 무기도 변변한것이 없었지만 인민들과 단결하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마침내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이 낳은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힘을 믿습니다. 인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민들의 힘에 의거해서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이겼고 미제국주의와도 싸워 이겼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데서 어느 전쟁

이 더 어려웠는가고 물었는데 두 전쟁이 다 힘겨웠지만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이 더 어려웠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 …

교활한 일제는 우리와 인민들을 갈라놓기 위해서도 별의별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일제는 내가 죽었다는 소문을 여러번 퍼뜨렸습니다.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의 목을 달아매고도 나를 어떻게 했다는 광고장을 내붙이면서 허튼 소문을 퍼뜨려 인민들을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광고장을 내붙인것을 낮에는 가보지 못하고 밤에 가서 사실인가 하는것을 확인해보고는 도리여 일제놈들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리군하였습니다. 내가 한 서너번 죽었다는 소문이 났던것만큼 오래 살것 같습니다. 일제는 우리와 인민들을 갈라놓으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우리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를 가로막을수 없었습니다.

인민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며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혁명투쟁을 하여오는 과정에 절실히 체험한 진리입니다. 나는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도 해보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도 해보았으며 그 과정에 인민대중의 힘이 위대하다는 진리를 확증할수 있었습니다.

(2) 해방후 조선이 나아갈 독창적인 길

1945 년 8 월 15 일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조선은 해방되였지만 조선인민앞에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민주건설과업들이 제기되였다.

실정은 어려웠지만 인민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들이 나아갈 진정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이 나아갈 진정한 길을 독창적으로 제시해주시였으며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고 제반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

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수리아와 모잠비끄인사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하신 담화들에 언급되여있다.

새형의 민주주의, 조선식민주주의의 길

나는 그때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이 나아갈 길은 《미국식민주주의》도 아니고 쏘련식사회주의도 아닌 새형의 민주주의, 조선식민주주의의 길이라는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는 가장 정확한 새 조국건설로선이였습니다.

우리는 피로써 찾은 조국땅우에 지주, 자본가 계급의 정권인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울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하여 력사발전단계를 뛰여넘어 당장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도 없었습니다.

해방된 우리 나라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하루빨리 숙청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길로 나가야 하였습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가져다줄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조선이 나아갈 길을 똑똑히 밝혀주고 그들을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앙양된 열의와 장엄한 투쟁속에서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웠으며 짧은 기간에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북반부에는 참다운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서게 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당건설은 가장 선차적인 문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해방한 다음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는 당을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정권을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대중조직을 어떻게 내올것인가, 군대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당, 국가, 군대를 건설하는것이였는데 그가운데서도 당을 건설하는것이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해방직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잔재와 그 사상여독을 청산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36년동안이나 통치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조선말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조선글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일제통치때 모든 제도는 일본《천황》을 위한것이였으며 생활양식도 모두 일본식이였습니다.

일제놈들은 패망할무렵에 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 그들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테리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 인테리들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은 몇명 없었으며 인테리의 대부분이 교원들이였는데 적지 않은 교원들이《신사참배》를 하고 일본《천황》을 위하여 복무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주, 자본가들은 거의다 일제놈들을 위하여 복무하였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해방직후 누가 우리편이고 누가 적의 편인가 하는것을 옳바로 가려내는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만일 사람들을 나쁘게 평가하면 우리의 원쑤가 많아지게 되고 나쁜놈을 좋게 평가하면 그들이 우리 대렬안에 들어와 해독작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먼저 항일무장투쟁을 한 혁명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에서 지하투쟁을 하던 사람들을 망라하여 공산당을 조직하였습니다. 당을 건설하는데서 핵심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창건할 때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이르는 곳마다에서 여러 당파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산당, 신민당, 민주당, 청우당과 같은 여러 정당들이 나타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자처하여 나섰습니다. 여러곳에 나타난 당파들은 제각기 당세확장에 몰두하였습니다.

…

우리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쳐 대중적당인 로동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가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관계로 해방직후 로동계급은 아직 청소하였으며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였고 인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산당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당원들을 받아들인다면 몇천명밖에 입당시킬수 없었으며 당이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뿌리박을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 10월 10일에 공산당을 창건하였는데 그때 당원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청년동맹에 망라된 맹원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많은 당원을 망라하고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이였으며 그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고 미제국주의자들을 숭배하는자들이였습니다. 농민과 인테리의 리익을 대표하는 신민당의 당원수도 몇만명이나 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북조선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확대련석회의를 열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1946년 8월에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를 열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인 로동당의 창건을 선포하였으며 새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강령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조국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민주주의자주독

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을 당면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당규약에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로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로동당에 들어올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령과 규약의 요구를 좀 낮춘 결과 당이 매우 빨리 자라났습니다. 로동당은 짧은 기간에 45 만명의 당원을 가진 매우 큰 당으로 장성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민주당을 압도하였습니다.

자기를 보위하는 정규적무력건설-조선인민군

자주독립국가는 반드시 자기 군대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써 1948 년 2 월 8 일에 정규군대를 창건하였습니다.

제반민주개혁의 성과적인 실시

우리는 일제를 패망시킨 다음 인차 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단계의 기본과업은 봉건적잔재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잔재를 숙청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이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모든 산업시설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개혁들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주개혁들도 실시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봉건적잔재와 일제의 식민지적잔재가 청산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널리 참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기술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동자, 농민들은 물론, 낡은 사회의 인테리들과 중소기업가들까지도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총동원되게 되였습니다.

2) 조국해방전쟁승리와 전후복구건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만나신 기회에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나날들을 자주 돌이켜보시였다.

이 어려운 나날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믿으신것은 오로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력,무궁무진한 조선인민자체의 힘이였다.

(1) 전민의 단결된 힘과 주체전법으로 승리한 조국해방전쟁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조선과의 전쟁, 원자탄을 가지고 달려드는 포악한 침략군대와 보총밖에 없는 조선인민군과의 대결, 이것은 무장장비의 수준과 규모에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나기 그지없는 싸움이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보기 좋게 후려갈기고 쾌승을 이룩하였다. 그 위대한 전승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일랜드로동당총비서, 뻬루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사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언급하시였다.

작은 나라라도 굳게 뭉쳐 싸우면 승리

당신은 조선인민이 미제침략자들과 맞서 싸워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것은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면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얼마든지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세계인민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을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인민군대는 수적으로 적들보다 비할바없이 약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불과 몇만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수십만의 미국군대와 15 개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선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에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의 힘은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시기보다는 비할바없이 강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은 력량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이긴 경험을 가지고있었으며 항일혁명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을 끝없이 신뢰하고 우리의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훌륭한 인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대한 미제와 싸워 승리할수 있은것은 단결된 인민들의 위력한 힘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우리 제도는 인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제도이며 인민위원회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전체 인민을 잘살수 있게 하여준 고마운 제도와 인민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로동당의 부름따라 **김일성**장군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기어이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남의 식이 아닌 주체전법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나가야 하겠다는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해방후 우리는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에 류학생을 적지 않게 보냈으며 해외에서 활동하던 조선사람들도 많이 데려왔는데 그들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류학을 하고 온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우리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시기에 적들과 싸우는데서도 우리 나라의 실정은 고려함이 없이 다른 나라식으로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반대하였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때 구라파의 넓은 벌판에서 수백대의 땅크를 한꺼번에 내몰아 적을 공격하던 그런 전법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땅크가 많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땅크가 있다고 해도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는 한꺼번에 많은 땅크를 가지고 적을 공격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벌판이 적고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나는 그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전법으로 싸워서는 안되며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조선식전법으로 싸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한 유격전의 전법을 정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새로운 전법을 창조하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사람들은 공화국이 작은 나라이기때문에 많은 군대를 갑자기 들이밀면 공화국북반부를 단꺼번에 먹을수 있으리라

고 타산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전쟁초기 우리의 인민군부대들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전법을 잘 연구하지 못하여 일정한 곤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미군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우리의 인민군대는 일시적으로 후퇴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초기의 경험과 교훈을 제때에 총화하고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전법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은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산속으로 피했다가 뒤따라 들어오는 적들을 골짜기에 몰아넣고 때려부셨습니다. 그리하여 과대망상증에 걸려 우리 나라를 단꺼번에 먹어보려던 미국사람들은 숱한 병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몇백명의 인원으로 유격대를 조직하였고 투쟁과정에 점차 그 무장력을 몇천, 몇만명으로 늘여나갔습니다.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적을 단꺼번에 많이 소멸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소멸하는 전법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많은 적을 소멸하였으며 결국 최후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미국사람들은 우리보다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적들이 우세한 조건에서 우리는 적을 단꺼번에 몇개 사단씩 소멸하려 하지 않고 한개 소대, 한개 중대씩 소멸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손실이 점차 많아지자 전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저들에게 더욱 불리하다는것을 깨닫고 정전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조선을 단꺼번에 먹어치우려고 달려들었다가 혼쌀이 났으며 미국전쟁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전쟁에서 패배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2)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준 전후복구건설

전쟁시기에 감행한 미제의 야만적인 무차별폭격과 포격으로 말미암아 전후 조선의 모든 산업시설들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도시와 농촌은 재더미로 되였다. 게다가 자재와 자금사정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한편 미제는 조선은 100 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사실 그때 조선의 형편은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실망하거나 주저앉아있지만 않았다.

비록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밖에 없었지만 조선인민은 수령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이상 반드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들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에 달라붙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의 여러 인사들에게 당시 전체 인민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전후복구건설을 3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함으로써 100 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하리라고 떠벌이던 미제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하시였다.

기본은 우리자체의 힘

우리는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여 싸울 때도 그랬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에도 남의 도움을 크게 받은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사회주의나라들로부터 원조를 좀 받았지만 그때에도 남의 원조가 위주로 된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력갱생이 위주로 되였습니다. 남의 원조는 두번째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국주의자들의 폭격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 할것없이 모든것이 다 재더미로 되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빈손밖에 남은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복구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방조를 좀 받았지만 그것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복구건설하는데서 기본은 우리자체의 힘이였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철도를 전기화하기 위하여 자체로 전기기관차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에 와있던 구라파의 어떤 나라 대사는 조그마한 당신네 나라에서 전기기관차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당신들이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청년기술자들과 오랜 기술자들은 자체로 설계하여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달리고있는 전기기관차들은 다 우리가 자체로 만든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에 의거하였기때문에 일본제국주의와 싸워이길수 있었고 미제국주의와도 싸워이길수 있었으며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빈터우에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조선을 훌륭히 건설할수 있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 나라에는 집 한채 성한것이 없었습니다. 평양시만 놓고보아도 남은것은 반나마 파괴된 두세채의 건물뿐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우리 인민은 모두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에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단련된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으며 인민정권이 있고 당과 수령이 있다, 우리가 제힘을 믿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복구건설은 얼마든지 빨리 할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00 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들었지만 그들은 오산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 힘으로 일떠

셨으며 20 년도 채 못되는 기간에 모든것을 전쟁전보다 몇배나 더 훌륭하게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모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게 꾸렸으며 평양에 현대적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습니다. 지난날 37 만명의 인구가 살던 평양이 오늘은 현대적인 큰 도시로 변모되였습니다.

…인민대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인민을 믿고 그들을 묶어세워 불러일으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인민들은 집도 짓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무엇이나 다 합니다. 인민들의 창조력을 높이고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하면 얼마든지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습니다. 인민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정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민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고있기때문에 지난날 미제와 싸워 승리한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할것입니다.

인민대중의 힘 발동

전쟁이 끝난 다음 복구건설을 해야 하겠는데 우리 일군들은 한숨만 쉬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후복구건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있을 때 나는 우리에게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으며 인민정권이 있고 당의 옳바른 령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재더미우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떠설수 있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싸워이긴 우리가 복구건설을 해내지 못하겠는가, 모두다 복구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전체 인민을 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짧은 기간에 파괴된 도시와 농촌, 공장들을 새로 일떠세웠으며 전후복구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전후복구건설시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

리는 미제와 싸워 승리하였지만 전후 나라의 형편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3 년동안의 전쟁으로 나라의 모든것이 다 파괴되였습니다.

전쟁전에 평양시에는 37 만명의 인구가 살고있었는데 미제는 전쟁기간 평양시에 500 키로그람짜리 폭탄과 1 톤짜리 폭탄을 비롯하여 40 여만개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미제가 평양시민 한사람에게 1 개이상의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평양에는 성한 집이 한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나마 파괴된 3 채의 해방전 콩크리트건물이 남아있었는데 그 하나는 부청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이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화신백화점이였습니다. 전쟁시기에 평양시뿐아니라 나라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 다 재더미로 되였습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이렇게 무참히 파괴하여놓고 전쟁이 끝나자 조선은 앞으로 100 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였습니다.

전후에 우리 인민은 복구건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숨만 지으면서 나를 쳐다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인민에게 비록 나라의 모든것이 다 파괴되였지만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고 당과 주권이 있는 이상 능히 다시 일떠설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신심을 가지고 다시 일떠섰으며 100 년이 아니라 20 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평양시를 비롯한 온 나라를 전쟁전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우리는 실지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창조력과 헌신성을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전후 3 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제 1 차 5 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던 시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제 1 차 5 개년계획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할데 대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자금도 부족하고 로력과 설비, 자재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라의 안팎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였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강화하였으며 반공소동을 악랄하게 벌렸습니다. 한편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좌우경기회주의가 나타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반부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공화국북반부로 쳐들어오겠다고 《북진》나발을 요란하게 불어댔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어려운 정세가 조성된 틈을 타서 머리를 쳐들고 당을 도전해나섰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공공연히 반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앞에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나서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혁명투쟁의 어려운 시기마다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갔던것처럼 이때에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알려주고 혁명의 요구와 당의 의도를 해설해주었으며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나섰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낡은 공칭능력과 기준량을 마스고 새 기준량을 창조하였으며 생산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인민대중의 앙양된 기세와 헌신적인 투쟁속에서 우리의 앞길에 가로놓였던 여러가지 난관들이 극복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났으며 이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에서의 천리마운동의 발단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자체로 양성한 민족간부에 의거

전후에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낸것은 전쟁시기에 양성한 민족간부들이였습니다. 우리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형제나라들에 류학을 보내여 기술인재들을 키웠으며 산속에 풍막을 치고 대학을 운영하여 민족간부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성한 민족간부들이 전후복구건설에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혹심하게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자체의 민족간부가 있었기때문에 전후복구건설사업은 해방직후 경제를 복구할때보다 좀 헐하였습니다.

3)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전후 재더미를 털고 일어난지 얼마 안되는 조선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또 하나의 거대한 력사적변혁이 일어났다.

그것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였다.

조선인민은 천리마의 기상으로 힘차게 내달려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단 1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변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시여 조선을 일대 변혁시키시였고 세계를 격동케 하시였다.

(1) 주체를 내세우고 수행된 사회주의혁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당시 주체확립문제를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무엇보다먼저 사대와 교조를 불사르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전개하시였다.

이어 집단적혁신운동인 천리마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시였고 농업협동화와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우리식으로 완성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의 인사들에게 하신 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은 전후시기에 더욱 절실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1955 년에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연설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선전선동일군들에게 우리가 물론 협애한 민족주의자가되여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잊어서는 안되며 한폭의 그림을 그려도 우리 인민을 위하여 그리고 한가락의 노래를불러도 우리 인민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체를 세울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전후에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고 모든 일을 우리 식으로 하였습니다.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 사업도 다른 나라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은 짧은 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되였습니다.

나는 농촌경리를 협동화 할 때 일군들에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은 배워야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것을 씹어보고 《위》에서 받으면 삼키고 받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후에도 우리는 일군들에게 다른 나라의것가운데서 우리 인민이 요구하는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인민이 요구하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의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본따지 말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이렇게 주체사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모든 사업을 우리 식대로 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잘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고있습니다. 공업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있고 건설도 주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농업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업전문가들가운데는 지난날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는 그들이 배워온 농법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농촌실정과 우리 나라의 농촌실정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워온 농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농법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농사를 바로 지을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의 농업대학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농업대학교과서를 번역하여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노래도 우리 식으로 부르고있으며 가극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고있습니다.

물론 세계에는 챠이꼽스끼의 음악작품들을 비롯하여 훌륭한 음악작

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음악작품도 다른 나라의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에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예술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것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과 지난날의 낡은것을 그대로 되살리려는 경향을 다같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인 공업, 주체적인 농업, 주체적인 건설, 주체적인 문학예술이 빨리 발전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갑니다.

… …

사실 우리는 맑스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맑스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맑스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활동하면서 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내놓았습니다. 맑스는 구라파의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날것이라고 보았으며 세계적범위에서 공산주의가 인차 승리할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때로부터 100년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공산주의가 실현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에는 아직도 자본주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매우 교활합니다. 자본가들은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짓을 다합니다. 자본가들은 로동계급속에서 로동귀족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내세워 로동운동대렬을 와해시키려고 책동합니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대렬이 장성하기만 하면 혁명이 저절로 일어날것이라고

보아도 안되며 또 로동계급만 가지고 혁명을 할수 있다고 보아도 안됩니다. 지난날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로동계급이 얼마 없고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농민들과 수공업자들까지 다 묶워세워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 …

맑스가 쓴 책에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씌여있지 않습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혁명의 수행방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매개 나라 실정은 그 나라 당이 잘 압니다. 뻬루혁명에 대하여서는 당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조선혁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그 나라 당이 가장 정확한 결론을 내릴수 있습니다.

혁명을 하는데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혁명을 하는데는 공식이 없습니다. 혁명을 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밖에는 다른 공식이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였습니다.

집단적혁신운동인 천리마운동발단

우리는 1956 년 12 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천리마운동이 발단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습니다.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제일 먼저 추켜든것은 강선제강소로동계급이였습니다. 우리는 천리마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평양에 천리마동상을 세웠습니다.

지난 20 년동안 우리 인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왔습니다. 지금 회고하여 보면 우리도 그때 우리 인민이 그처럼 빠른 속도로 전진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느 한 부분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군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엄중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과 직접 마주앉아 애로를 타개하며 혁신을 일으킬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대중은 당의 의도를 파악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인 혁신운동을 일으켰으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천리마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대중적혁신운동입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가장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바로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습니다. 천리마운동이 널리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혁

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정과 재능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지난날 아무리 뒤떨어졌던 나라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자도 능히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존엄을 수호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실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은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으며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로선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농업협동화문제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농업을 기계화할수 있을 정도로 공업화를 한 다음에 개인농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후 빈농민과 함께 부농까지도 다 국가의 구제대상으로 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업화를 실현하기전에 개인농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써 농업생산력발전의 길을 열어놓아야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가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도 혼자서 일하는것보다 힘을 합쳐서 일하는것이 몇배 더 낫다고 인정하고 기술개조에 앞서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농업협동화를 한다고 하니 어떤 나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개인농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당이 내세운 방침에 따라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벌렸

습니다.

… … …

우리가 매우 짧은 기간에 아무런 편향도 없이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승리적으로 끝낼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정책이 옳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농업협동화운동에서 강제적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켰으며 여러가지 옳바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빈농민들로 조직된 협동조합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협동농민들에게 장기대부를 주어 농기구와 부림소 같은것을 마련할수 있게 하였으며 현물세도 협동조합들에서는 개인농민들보다 낮은 비률로 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협동조합들에 개인농민들보다 비료도 눅은 값으로 더 많이 공급하여주었으며 수리화를 하여 물도 협동조합들에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국가의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협동농민들의 생활수준이 빨리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자 개인농민들은 혼자서 농사를 짓는것보다 힘을 합쳐 농사를 짓는것이 더 낫다는것을 깨닫고 자원적으로 협동조합에 들어오게 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도시의 개인상공인들로 생산협동조합 또는 판매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운영할수 있도록 대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실시한 모든 정책들이 매우 정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후에 우리가 농업협동화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는 농업협동화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조건에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농민들이 한데 뭉치니 큰 힘이 생겼으며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도시의 수공업자들과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도 경제토대를 다 잃었으며 전후에 그들에게 남은것은 빈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가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없앤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 없애버렸습니다.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이 다 파산몰락된 조건에서 국가가 그들에게 돈을 대주어 되살려가지고 그들과 투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개인상공업자들에게 빈손밖에 없었던 전후시기를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로 인정하고 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공업자들끼리 힘을 합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대주어 수공업자들이 설비를 사서 공동으로 경리를 운영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공업자들로 조직된 생산협동조합에 중소기업가들도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상인들에 대해서는 판매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점차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의 주체사상의 전면적구현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온 조선인민은 전면적사회주의건설이라는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러한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조선인민은 아직까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인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면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갔다.

온 나라에 3 대혁명이 힘차게 벌어지고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포괄하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일신되여 나갔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룬데 기초하여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는 자립적민족경제가 건설되였으며 사회주의 민족문화와 교육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되였다.

주체사상의 전면적구현과 그 과정에 이룩된 이러한 귀중한 경험들과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여러차례 언급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국에로의 전변

… 지난날 우리 나라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물려받았으며 그것마저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게 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전진도상에서 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없애고 훌륭한 사회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섰으며 우리 나라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높은 창조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3 년남짓한 동안에 전후인민경제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내였으며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려 14 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인민들의 생활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위대한 승리는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당이 내놓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던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힘으로 갖출것을 다 갖추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더우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앞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새 생활창조의 어렵고 험난한 길을 용감히 개척하여나갔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확립, 이것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행복과 보다 휘황한 앞날에 대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은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는 매우 뒤떨어지고 예속적인 경제였으며 그것마저 3 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경제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 14 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한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인민들의 생활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방향-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운 3대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3대혁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은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만들고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모든 사람들을 인테리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민족간부양성사업에 큰 힘을 넣어 이미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고지를 점령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과학과 기술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인민이 고중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모두가 다 대학졸업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사상혁명은 모든 사람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방향이며 기본투쟁목표입니다.

우리는 1970년에 당 제5차대회를 열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1971년부터는 그것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전후 20년동안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고 또 오늘의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변하기때문입니다. 그것은 특히 지난날 우리 나라가 매우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은 맑스가 혁명리론을 전개하는데서 념두에 두었던 구

라파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먼저 일어난것이 아니라 뒤떨어진 자본주의나라들에서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나라들에서 먼저 일어나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두 요새, 다시말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물질적요새만 점령하려 하여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수행하지 않고 기술혁명에만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의 구호를 내걸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상혁명은 반혁명을 숙청하는 혁명이 아닙니다.

사상혁명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인답게 일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없애는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이라는것은 모를 때에는 어렵지만 알면 헐한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신비주의를 타파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모든것을 다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하는데서 안일과 사치를 반대하고 긴장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모두가 다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넣고있습니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수행에서 힘든 로동이 많이 남아있는 채취공업에 큰 힘을 넣었는데 6개년계획기간에 이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였습니다.

기술혁명에서 기본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기계공업발전을 계속 앞세워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공장, 기업소들에 3대혁명소조들이 나가 기술혁명수행에서 많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에는 당일군들만 들어가있는것이 아니라 대학교원들과 대학졸업반학생들 그리고 우수한 기술자들도 망라되여있습니다. 매 공장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몇십명씩 내려가서 공장일군들을 도와 기술혁명을 추진시키고있습니다.

문화혁명도 역시 잘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당창건 30돐기념대회보고에서도 말하였지만 앞으로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방침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근로자들이 다 고등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45살아래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45살이 넘는 사람들은 지난날 공부를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근로자중학교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공부시키고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45살이 넘는 사람들도 앞으로 몇해사이에 다 근로자중학교를 졸업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문화혁명에서 중요한것은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워내는것입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도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문화혁명과 사상혁명, 기술혁명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실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한집안식구처럼 살고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한것은 우리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복숭아에 비유하여 말할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겉에 살이 있고 그속에 굳은 껍질이 있으며 그속에 씨가 있습니다. 복숭아의 씨는 우리 당의 수뇌부와 같고 굳은 껍질은 당과 같으며 살은 대중과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강력한 당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인민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여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 수령을 높이 존경하고 자기 당을 진심으로 신뢰하고있으며 우리 당은 자기 인민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고있습니다. 나는 인민들과 더 친숙해지기 위하여 늘 그들속에 들어갑니다. **김정일**동지도 역시 인민들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의사를 알아보고 그것을 당정책에 반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당정책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

끄떡없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경제건설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입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한것입니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로 되였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인민경제를 계속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다고 하여 우리가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들사이에 유무상통하며 서로 협조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충분히 인정하고있으며 그것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립장은 국가들사이의 호상협조를 매개 나라가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하자는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것입니다.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면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자립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로동에 의거하여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자립경

제건설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 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원유발전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사다가 발전소를 돌리는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을 리용하여 동력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였기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인 연료위기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업부문에서 원료의 70%이상을 자체로 해결할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적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전진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립적경제건설로선이 얼마나 정당하며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경제, 주체공업이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정치적독립은 자립경제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지만 재더미우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아놓은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주적인 존재로 되려면 자기 발로 걸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도 자주독립국가로 되려면 자기 발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남의 부축을 받아 걸어나가는것은 자유롭지 못하며 또 남의 부축을 받아가지고는 빨리 나갈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곤난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자립적으로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자기 힘

으로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새 사회건설을 시작한지 몇십년이 되였지만 아직 자립적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대비해볼 때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더 생깁니다. 우리는 자기 발로 걷기때문에 더 빨리 가고싶으면 더 빨리 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휘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우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는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로 극복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을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며 모르는것은 알아내여 부닥치는 난관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나가도록 교양하고있으며 질이 좀 낮아도 자기가 만든 물건을 더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상점들에는 다른 나라 상품은 하나도 없고 우리 나라의 상품들이 가득차있습니다. 우리 나라 상점들에 가보면 다른 나라 상품이 없는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 상품의 질은 아직 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지난날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자체로 물건을 만들어쓰고 자기의 천으로 옷을 해입는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고 늘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쇄국정책을 쓰는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문을 닫아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일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지 않는 정책을 쓰고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나라에 다른 나라의 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기계설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기계를 더러 사옵니다.

우리가 전후에 다른 나라에서 기계를 사올 때 어떤 사람들은 기계를 먹고 살겠는가고 하면서 시비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가 자립적인 나라로 빨리 발전하려면 기계를 사다가 공업을 건설

하여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형제나라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 아니였습니다. 우리 당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확고히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자기 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경제적파동이 일어나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전진할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던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힘으로 갖출것을 다 갖추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더우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앞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새 생활창조의 어렵고 험난한 길을 용감히 개척하여나갔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원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여 투쟁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부강한 조국을 건

설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여나갔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이야말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과 민족문화의 전면적개화

우리 나라에서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문화혁명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문화혁명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세운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지식수준을 빨리 높이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학습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학습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도 개조하고 문화혁명의 과업도 수행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460 만명이나 되며 그가운데서 고등기술학교학생과 대학생만 하여도 24 만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과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

교 학생들을 모두 국가부담으로 교육교양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여 청소년교육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에게는 민족기술간부가 얼마 없었으나 오늘 우리는 60만명에 이르는 대학졸업생들과 고등기술학교졸업생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술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몇십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기 우리 나라에는 대학이 서울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대학마저도 거기에는 문과나 법과 같은것만 있었지 기술학과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변호사와 의사가 좀 있었을뿐 민족과학기술인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얼마 안되는 인테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아끼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유한 가정의 출신들이지만 일제의 민족적차별을 받으며 공부를 하였기때문에 반제의식과 민족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널리 포섭하여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교양하였습니다.

우리의 교양을 받은 인테리들은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특히 민족기술간부를 키우는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의 민족간부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있고 공장, 기업소를 운영하고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훌륭히 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교육정책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여 인

민학교학생으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무료교육을 받고있으며 학령전어린이들은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행복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특히 1 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 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 10 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로 우리 나라의 모든 새 세대들은 11 년동안 국가의 혜택으로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겼던 성인들도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주체적인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이처럼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이 이룩될수 있은것은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입니다.

4)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장장 수십년세월 민족분렬의 고통을 가슴아프게 체험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최대의 념원은 조국통일이다.

통일을 갈망하는 조선민족의 최대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평생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고와 심혈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이의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이며 합리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이 마련되였으며 조국통일의 전도를 내다보게 하는 력사적사변들이 일어났다.

(1)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리해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민족자체내부에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생겨난 문제이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가지신 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외국의 인사들과 만나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조선통일문제의 발생근원은 미제의 남조선강점

원래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 2 차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외세에 의하여 남북으로 갈라졌으며 외세의 간섭때문에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입니다.

력사적으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해방후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지게 되였습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우리 나라 남반부인민들은 해방후에도 의연히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있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분렬된 경위와 우리 나라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따져본다면 그것은 중요하게 외세와 관련되여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분렬이요, 통일이요, 하는 문제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것이며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렬강들이 조선문제를 동서간의 대립관계에 기초하여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가 분렬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조국통일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념원, 최대의 민족적과업

오늘 조선인민의 가장 큰 념원은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 것입니다.

조선민족은 단일민족입니다. 조선민족이 둘로 오래동안 분렬되여있는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것은 커다란 민족적비극입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도 다같이 나라의 통일을 바라고있습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나라를 통일하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해방후 27 년이 지나도록 통일되지 못한채 남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평화적조국통일의 기운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속에서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급격히 높아가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조선간의 접촉과 래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민족분렬의 인공적장벽은 의연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오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된 단일민족인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마저 점차 서로 달라져가고있습니다.

민족의 분렬은 나라의 부원과 인민의 력량을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동원하고 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남북조선의 분렬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분렬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전민족의 번영을 기대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도탄에서 구원할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이 나라를 통일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고 부르짖고있으며 민족적량심을 가진 많은 인사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더는 지연시킬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과업입니다.

통일문제의 본질은 민족의 자주권확립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민족내부문제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오직 조선의 주인인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여기에는 그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또 간섭하여서는 안됩니다.

민족의 내부문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때에만 자기 민족의 리익과 자기 인민의 의사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있습니다. 외부세력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없습니다.

통일문제해결에서 기본은 외세의 간섭반대, 조선인민자체의 힘, 평화적방법

우리는 조국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할것을 시종

일관 주장하고있습니다.

조선통일의 기본장애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

지금까지 전민족의 숙원인 우리 나라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분렬책동을 실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지 않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였을것이며 4 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을것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동서도이췰란드통일과 구별되는 조선통일문제

우리 나라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독일은 지난날 남의 나라를 침략한 나라이며 전패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남을 침략한 나라도 아니고 전패국도 아니며 남북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원하고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 사람들은 조선도 독일과 같이 두개 나라로 유엔에 가입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독일과 사정이 다릅니다.

독일은 지난날 남의 나라를 침략한 침략국이며 전패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구라파사람들은 독일이 통일되면 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

장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면서 독일이 통일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날 남을 침략한 나라도 아니고 전패국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여도 주변나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세아사람들은 조선이 통일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동서독일의 경우와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동서독일은 량측이 다 분렬되는것을 찬성합니다. 지난날 독일은 침략국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에 둘로 갈라져 하나는 로동자, 농민의 국가로 되고 다른 하나는 독점자본의 국가로 되였습니다. 동부독일에서 로동자, 농민의 국가를 유지하는것은 결국 서부독일독점자본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근방에 있는 구라파나라들은 독일이 통일되여 군국주의적으로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군국주의적으로 강대해지면 다시 침략세력으로 등장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날 남의 나라를 침략한 나라가 아니며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남의 나라를 침략할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인민과 쏘련인민도 그렇게 보지 않으며 일본인민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이 분렬되여 싸움을 하는것보다 통일되는것이 아세아나라들에 더 유리합니다. 일본인민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으며 중국인민과 쏘련인민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특히 중요한것은 남북조선인민들자신이 나라의 분렬을 바라지 않고있는것입니다. 조선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오래동안 통일국가안에서 살아온 력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분렬되는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조선을 독일과 같이 만들려 하고있는데 조선문제는 독일문제와 같지 않습니다.

……

지난날 독일은 파쑈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였다가 패망한 전패국입니다. 독일이 통일되면 구라파나라들이 그로부터 위협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은 독일이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으며 조선인민은 압박받던 인민입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도 없습니다. 조선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5 000년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 나라를 갈라놓을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통일된다고 하여도 다른 나라에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큰 나라들입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된다고 하여 중국이나 쏘련을 위협할수 있겠습니까. 또 일본이나 미국을 위협할수 있겠습니까.

정반대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큰 나라들에 의하여 분할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남조선이 큰 나라의 희생물로 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는 반드시 통일되여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조선문제는 독일문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독일은 제 2 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전패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아니고 전패국도 아닙니다. 조선은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조선인민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습니다. 조선이 통일되여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주변나라들에 위협을 주지 않을것입니다. 통일된 우리 나라의 위협을 받을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나 쏘련도 우리 나라의 위협을 받지 않을것이며 일본도 우리 나라의 위협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2) 조선로동당이 내놓은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

조선로동당이 내놓은 조국통일방침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래동안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조국통일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렬된 첫 시기부터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여러 인사들에게 하신 그이의 교시내용을 아래에 보여주었다.

남북총선거의 실시

우리가 일관하여 제기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는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전후에만도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와 그 이후 수차에 걸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들에서 이러한 방안을 거듭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방안은 외국군대의 철거를 선결조건으로 하고있습니다. 외국군대가 국토를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인민대중의 의사표시의 자유가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북조선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습니다. 문제는 《유엔군》의 간판하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국군대를 철거시키는데 있습니다.

남북총선거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동시에 정당활동의 완전한 자유와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실시되여야 합니다. 모든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이 남북조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수 있게 되여야 하며

인민들이 남북조선의 현실을 자유롭게 볼수 있고 모든것을 스스로 판단할수 있게 되여야 하며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어느길로 나아갈것인가를 마음대로 론의하고 자체로 해당한 결론을 지을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조성한 기초우에서 일반적이며 평등적이며 직접적이며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한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면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총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안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도 역시 전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이미 남조선인민들과 온 세계 인민들앞에 널리 선포된바와 같이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것을 시종일관 바라고있습니다.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킨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중앙정부를 세우자는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이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한 민족자주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소속과 정견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지식정도, 신앙과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하기때문입니다.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3대혁명력량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둘째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셋째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투쟁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은 해방후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습니다.

지난 기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사회주의적근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였습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가로놓여있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3 대혁명력량, 다시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 남조선의 혁명력량, 국제혁명력량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 남조선의 혁명력량,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을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로 인정하고 이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기지로

꾸릴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우리는 어느때든지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튼튼한 혁명기지를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착취와 압박을 직접 받는것은 남조선인민들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각성하여 투쟁에 일떠서야 미제를 몰아낼수 있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 대원칙

1972 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는데 그때 우리가 조국통일 3 대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3 대원칙은 첫째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무엇때문에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미제침략군대는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미국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것은 완전히 비법적이며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군대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입니다.

조국통일의 3 대원칙은 둘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는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지만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이것을 초월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

라, 다른 민족들도 사상과 제도에 관계없이 친선관계를 맺고 서로 좋게 지내는데 한민족끼리 왜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단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에게 자본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북과 남의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도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래왕도 하고 무역도 하면서 합작을 실현하면 북과 남이 다같이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인민들이 다 잘 살수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풍부한 자원과 발전된 중공업이 있으며 남조선에는 부침땅이 많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이 모자라 해마다 많은 땅을 묵이고있는데 북과 남이 합작하여 관개공사를 하면 남조선에서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면 물고기도 같이 잡을수 있고 우리가 남조선에 공업원료도 대줄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다른 나라의 원료를 사다쓰는것보다 자기 나라의 원료를 가지고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훨씬 더 좋을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래왕하고 교류하는 과정에 서로 리해를 깊이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남북련방제를 실시할수 있고 나아가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3 대원칙은 셋째로, 북과 남이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남침》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과 남사이에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시종일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 대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 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립장과 의사를 집대성한것입니다. 조국통일 3 대원칙은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적요구와 근본리익에 맞으며 시대의 흐름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강령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우리는 지난해(1980 년)에 있은 당제 6 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새로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쁠럭불가담적인 국가로서 통일하자는것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며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입니다.

지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조국통일방안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습니다. 가나인민을 비롯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지어는 미국의 많은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인민들도 우리 당의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에 대하여 커다란 공감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당면하게 남북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련방제는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자는것입니다. 남북사이에 제도상차이는 있지만 남북쌍방이 서로 자기의 사회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남북사이에 보다 광범한 접촉과 래왕이 실현될것이며 경제, 문화 교류도 더욱 원만히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합작하고 교류하면 공화국북반부의 발전된 중공업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리용하여 남조선의 경제형편을 빨리 개선할수 있을것이며 남북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매우 유익할것입니다. 남북의 체육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남북으로 서로 오고가면서 체육경기와 예술공연을 하며 국제체육경기들과 국제예술축전들에 남북단일팀과 남북단일예술단을 구성하여 보낼수도 있을것입니다. 기자들도 자유로이 래왕하면서 취재활동을 하며 평양과 서울에 기자대표부나 신문사지국을 두고 남북사이에 신문, 잡지같은것을 교환하는 사업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련방제를 실시하고 남북사이에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광범한 교류와 래왕을 실현하게 되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랭랭한 감정은 가셔지고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며 민족적단합이 쉽게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가 모두 철거하면 우리는 남북련방제를 거쳐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한 다음 인차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였으면 좋겠지만 나라와 민족이 30 년동안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었기때문에 당장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

러므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과도적조치로서 당분간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밑에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여 민족의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조절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교류가 촉진되고 신뢰의 분위기가 마련될것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단합이 이룩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울수 있을것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수 있으나 우리는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한 다음 남북련방제를 거쳐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조선민족의 리익과 우리 인민의 의사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조국통일 5대방침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이 더욱 강화되는 조건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해(1973년) 6월에 조국통일 5대방침을 새로이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근본립장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조국통일 5대방침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떻게 하나 90 년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지난해(1993 년)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고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창립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들을 타개할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립장에 서야 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귀중히 여기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를 론하지 말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적통일을 위한 방안이며 따라서 그것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전제로 합니다. 민족의 합작과 교류를 떠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야 하며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3)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과 그 전망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시종일관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건설적인 평화제안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한 노력가운데서 1972 년에 7 월 4 일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채택발표한 북남공동선언은 조선인민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투쟁과정에서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동성명의 내용과 앞으로의 조국통일전망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언급하시였다.

7.4 남북공동선언발표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였으며 1972 년 7 월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근본립장이 밝혀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 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협상이 마련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물론, 전세계인민들이 이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였으며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남북협상을 주시하였습니다.

1972년에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대표가 왔는데 그때 그는 북과 남은 지구의 두 극과 같으므로 언제가도 합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민족은 절대로 영원히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은 같은 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이기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였습니다. 민족대단결이라는것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단결한다는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사상을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우리에게 남조선의 사회제도를 강요하거나 공산주의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조선대표는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며 남조선 최고당국자도 그것을 찬성할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양에 왔던 남조선대표가 돌아간 다음 우리 대표가 서울을 방문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대표에게 남조선에 나가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 대원칙을 남조선의 최고당국자도 찬성하면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표가 남조선에 나가 남조선의 최고당국자를 만났는데 그는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북공동성명을 당장 발표하기 곤난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표가 서울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 얼마 지나서 남조선측은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 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우리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

미암아 커다란 장애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3 대원칙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자들도 찬성하였습니다.

남조선대표가 공화국북반부에 왔다간 다음 우리 대표도 남조선에 가서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였습니다.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이 여러차례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는 조국통일의 3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고 북과 남의 군대가 서로 싸우지 않으며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를 진행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수시로 협의하고 조절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데 대하여 남조선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의 결과로 마침내 조국통일의 3 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락관적인 조국통일전망

우리 나라의 통일전망은 한마디로 말하여 락관적입니다. 물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려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나라의 통일전망에 대하여 조금도 비관하지 않으며 락관을 가지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으나 적들의 그 어떤 책동도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투쟁과 세계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은 저지파탄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수천년동안 하나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한 강토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나라는 절대로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우리 민족은 영원히 갈라져 살수 없습니다. 오늘 남북조선 전

체 인민들은 한결같이 통일된 강토에서 함께 살것을 바라고있으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분렬을 꾀하는자들은 얼마 안되는 남조선반동들과 미제의 앞잡이들뿐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을 받고있습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전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코 실현하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난관과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락관하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온 민족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을 갈망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운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자기 조국을 통일하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거족적인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은 누구의 령도하에 실현된다기보다 민족공동의 지향과 노력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강령이 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 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이것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습니다.

온 민족이 통일을 바라고 통일력량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있는 이상 우리 나라의 통일은 민족의 단합된 힘과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입니다.

(4)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강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의 수많은 벗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그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의 인사들에게 하신 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문제는 세계문제의 한 부분이며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국제적인 지지성원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도당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면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을 더욱 불러일으키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부당한 행동들을 세계인민들앞에 널리 폭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보다 광범한 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적불행과 고통의 진상을 더 잘 알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에스빠냐의 프랑꼬도당이 한것과 같은 파쑈화를 남조선에서 실시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나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범죄적만행과 파쑈적학정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세계인민들앞에 널리 소개선전하여 조선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입니다. 지금은 남조선형편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응당한 수준에서 일으키지 못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조선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아세아의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여론을 더욱 활발히 불러일으킴으로써 조선문제가 아세아문제에서나 세계문제에서나 초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 남조선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의 각성도 더욱 높아질것이며 그들의 투쟁의욕과 기세도 높아지게 될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면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더욱 고무하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조선문제를 자기자신이 해결할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 문제의 국제적련관도 존중합니다.

조선인민은 아세아나라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유관국가들의 극동회의를 빨리 소집할것을 희망하며 그 회의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할것을 주장합니다. 인도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조선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유관국가들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보장할데 대한 의무를 지는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평화통일구호는 매우 정당하며 그것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세계인민들이 우리의 평화통일구호를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그것은 적들에게 더욱더 무서운 공포를 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외곡선전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일부 사람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신들과 같은 진보적인사들이 세계인민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민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입니다.

세계 절대다수의 나라들도 조선이 통일되기를 바라고있으며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조선의 유엔가입은 나라의 통일이 완전히 이룩된 다음이거나 남북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아무리 책동하여도 그것은 헛된 짓입니다. 우리 인민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밑에 단합된 힘으로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 특히 제 3 세계인민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크

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내외의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도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들을 수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그리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멀지 않아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침략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나올것을 기대합니다.

3. 세계의 자주화와 주체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세계진보적인류를 사회적진보와 번영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주체사상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인류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1) 현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

20 세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세계는 그 모습을 완전히 달리하였다. 지배와 예속을 불사르는 자주의 열풍이 료원의 불길처럼 급속히 파급되여 온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어느 한 나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대륙을 휩쓸고 온 세계에 파급되였다. 자주의 세찬 흐름이 온 천지를 태동하는 세계가 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렇듯 거창한 변혁이 일어나던 20 세기를 일컬어 자주성의 시대라는 명철한 정식화를 주시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 시대를 자주성의 시대로 평가하신 교시들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된다.

(1) 자주는 오늘날 세계정치정세의 특징

오늘 세계정치정세는 한마디로 말하여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반면에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자주성의 시대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에스빠냐, 뽀르뚜갈, 화란 같은 나라들이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세계 여러 대륙을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식민지예속밑에 있던 나라들이 거의다 해방되였습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한 결과에 지금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지향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제적정의와 평등의 원칙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쓰는 자주의 세찬 흐름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으며 자주성의 세찬 조류가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습니다.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온 세계가 자주성을 요구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속에서는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울려나오고있습니다. 나는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도 다 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 3 세계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고 사회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도 역시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자주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든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세계인민들은 다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일부 자본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프랑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일본도 미제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있고 카나다도 미국의 지시를 받기 싫어하고있습니다. 물론 일본반동들은 자주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본인민들과 일본의 사회계와 언론계는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어 일본의 집권당안에도 자주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것은 력사발전에서 매우 좋은 일입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오래동안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제 3 세계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일부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자주성을 요구하여나서고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이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

여주는것입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2) 온 세계의 자주화는 시대의 기본추세, 인류공동의 위업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사들과의 접견에서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계의 공고한 평화, 새 사회에로의 넓은 길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현 시대가 제기하는 력사적과제입니다.

력사의 전진운동에 장애로 되고있던 랭전은 종식되였으나 자주의 흐름에 역행하여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여보려고 하는 낡은 세력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랭전시기에 초대국들사이의 대결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가리워지고있던 제국주의적모순들이 랭전의 종식과 함께 표면에 드러나 여러가지 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습니다. 지금 서방세계에서는 리해관계에 따라 서로 배척하고 결탁하는 복잡한 관계속에서 새로운 쁠럭들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으며 정치경제적, 군사적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한 책동이 로골화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빈부의 격차는 날로 더욱 심해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세력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핵무기와 군사쁠럭, 돈주머니와 반동적부르죠아문화를 비롯한 온갖 수단들이 지배와 략탈, 침략과 간섭을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있으며 다름아닌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그 주되는 대상으로, 희생물로 되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인류가 념원하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력사에 의하여 부정된 랭전시대의 유물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력사의 흐름을 과거에로 되돌려세우려는 온갖 책동을 저지시켜야 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무대에서 평등하게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민주화하여야 합니다.

유럽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에서의 자주화실현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발전된 나라들이 집중되여있는 구라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지금 구라파에서는 중성자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반대하며 핵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최근년간 프랑스를 비롯하여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당, 사회민주당들이 련이어 집권한것도 역시 흥미있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구라파의 여러 나라 사회당, 사회민주당 간부들을 만나 그들에게 구라파의 자주화문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구라파를 자주화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 사회당, 사회민주당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 일련의 국제문제에서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있으며 미국의 정책에 맹종맹동하지 않고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라파가 철저히 자주화될것을 희망합니다. 다시말하여 구라파나라들이 렬강들에 추종하여 전쟁정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발전도상나라들, 제 3 세계나라들의 요구에 응해나서면 더욱 좋습니다.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 제 3 세계나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운다면 지금 겪고있는 경제위기에서 쉽게 벗어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 제 3 세계나라들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을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제 3 세계나라들을 자주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인민들속에서는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울려나오고있습니다. 나는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도 다 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세에 대하여서는 당신들이 잘 알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포클랜드사건을 계기로 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미기운이 높아지고 자주적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화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적으로 나갈것을 희망합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자주화되면 그 지역에서 미국은 고립되고말것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혼자서는 어쩌지 못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합과 행동에서의 일치강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억압받는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의 단결과 협조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처지를 잘 리해하며 서로 동정하며 참으로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긴밀히 협조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단결과 협조는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과 그들의 공동위업에 크게 이바지하는것입니다.

반제반식민주의의 기치밑에 모든 피압박민족들이 굳게 뭉쳐야 하며 서로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해방된 나라들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와 호상협조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이러한 단결과 협조는 날로 더욱 강화될것이며 더욱더 위대한 힘을 나타낼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반미통일전선의 형성을 방해하며 약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이 전략을 철저히 파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사회제도를 달리하며 또한 이 나라들에는 정치적견해를 달리하는 많은 당파들이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나라들과 당파들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데서 일치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사회제도의 차이와 정치적리념의 차이는 힘을 합쳐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며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자기의 특수한 국가적리익과 당파적리익을 앞에 내세우면서 반미통일전선을 분렬

시키거나 공동행동을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동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에만 리롭고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남협조의 발전

발전도상나라들, 제 3 세계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남협조를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 3 세계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을 해온지 이제는 대체로 몇십년씩 되였기때문에 나라마다 한두가지이상의 좋은 기술과 경험을 다 가지고있고 경제적기초도 일정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제 3 세계나라들이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토대에 의거하여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고 서로 좋은 경험과 기술을 교류한다면 발전된 나라들의 도움이 없이도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숭배사상을 버리고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남협조를 실현한다는것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것으로도 됩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교육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켜나가면 오히려 지금과는 반대로 발전된 나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것입니다.

교육, 문화분야에서도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잘 조직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제 3 세계나라들이 당면한 경제적난관을 이겨내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를 실현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새 사회 건설과정에 얻은 좋은 경험과 기술도 한두가지씩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집단적자력갱생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호상협조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남남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킨다면 큰 나라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아와 빈궁, 질병과 무지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세계인민들이 공감, 그들의 지향에 부합되는 주체사상

자주성의 시대인 오늘 자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이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부합되고 또 그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응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돌이켜본다.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물론, 자본주의나라인민들도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으며 특히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제3세계

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조선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상이지만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제 3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또한 그것이 제 3 세계인민들에게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의 가장 옳바른 길을 가리켜주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 3 세계인민들앞에는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문제로 되는것은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제 3 세계나라들이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다시 예속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제 3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있습니다.

제 3 세계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려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을 배우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이 제 3 세계나라들에 그대로 꼭 맞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3 세계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려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적립장이 요구됩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우리 인민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사상이지마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 …

인민들이 어떤 사상을 따르며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것은 자신의 의사에 달려있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제 3 세계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간다면 반드시 휘황한 미래를 가져올수 있을것입니다.

그 어떤 지배와 구속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입니다. 남에게 예속되여 노예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것은 모든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온갖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이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이 바로 현시대의 요구입니다.

주체사상은 결코 그 어떤 나라에서나 혁명을 우리 식대로 할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나라들에도 필요하고 그밖의 다른 나라들에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인민들을 옳게 교양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정당한 사상이기때문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로부터 그리고 우리 인민의 투쟁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사상이지만 그것이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자아내고있는것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와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세계사회주의운동강화발전

언제나 세계사회주의운동실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붕괴된 원인과 교훈, 사회주의재건운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운동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환히 밝혀지게 되였다.

(1)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단결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주의운동이 자기의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자면 우선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부터 바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나온 20세기를 돌이켜보면 세계사회주의운동대렬내에서는 통일단결과는 인연이 먼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종종 빚어져 예상치 않았던 후과가 빚어지군 하였다.

그때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어진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하시고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하여 절절하게 피력하시였다.

아래에 소개되는 교시들은 그들가운데 일부를 수록한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관계는 동지적 및 형제적관계

사회주의나라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사회제도와 계급적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동지적관계이며 형제적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은 공고한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으며 이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게 됩니다.

자주성의 원칙견지는 단결과 협조의 전제

우리는 철저한 자주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레닌이 제 3 국제당을 조직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다 공산주의의 어린 학생들이였으며 배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레닌이 사회주의혁명을 한지도 거의 60 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공산주의의 어린 학생들이 다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겪었으며 투쟁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으며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렸을 때와 같이 배우지 않아도 쓰고 단것, 뜨겁고 찬것을 다 자체로 가릴줄 압니다. 지금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으며 또 어느 길로 나가야 한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은 매개 당들이 다 자기 발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과정에 과오를 범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범한 과오는 자체로 고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시켜서 범한 과오는 자체로 고칠수 없습니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입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 나라 인민들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당들은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그것이 진실로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와 당들이 자주성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며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혁명을 하고도 남에게 예속되여있을바에야 무엇때문에 혁명을 하겠습니까.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을수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높은 당과 낮은 당은 있을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당은 다 평등합니다.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그전과 같지 않습니다. 맑스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내놓았으며 레닌은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여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국제당이 있었으며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의 많은 나라 당들이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

하여 자기 나라의 문제는 자체로 판단하고 처리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다시말하여 모든 당들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후견인이나 방조자가 필요없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다른 나라의 당을 지배하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입니다.

한집안에서도 다 큰 아이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싫어합니다. 제 손으로 밥도 먹을줄 알고 모든것을 다 할줄 아는데 무엇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당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으며 자력갱생은 국제적협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라들사이의 국제적협조는 필요하며 또 요구됩니다. 자력갱생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적협조를 하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매개 나라가 자기에게 요구되는것을 다 자체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을 다 자체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만들고 적게 요구되거나 없는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해결합니다.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갱생한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술만 가지고 모든것을 발전시켜야 되는것이 아닙니다.

… …

우리는 나라들사이에 호상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도 협조를 하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에도 협조를 하며 발전된 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사이에도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통일과 단결의 4가지 원칙

우리는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있습니다. 그 네가지 원칙이란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계속하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입니다.

우리는 내정불간섭원칙을 주장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로선을 취하든 거기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가정안에서도 누구든지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싶으면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싶으면 차를 마시고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여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구속하면 가정이 화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반혁명의 길로 나가지 않는 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도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있으며 설사 간섭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호상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때문에 서로 좋게 지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우리 당은 특히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렬을 반대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핵심력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분렬시키는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개 나라 당들이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립장에 튼튼히 선다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렬을 방지하고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려면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

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특히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며 다른 나라 당의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2) 1990년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원인

지난 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조성되였다.

이것을 기화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력량들에 대한 반사회주의적선전공세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수많은 나라 당들과 진보세력들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고 포기하는 사상적혼란이 빚어지고 있는것이였다.

벌어진 사태를 시급히 바로잡는것은 사회주의운동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사회주의를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전개하시였다.

근본원인은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것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근본원인은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구현하자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적집단으로 통일단결시켜야 하며 당의 령도밑에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국가관리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반사회주의적사상조류의 침습을 막아낼수 없게 되고 관료주의가 조장되여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할수 없게 되며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을 발휘할수 없게 됩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이러한 근본문제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사회주의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사회주의위업이 좌절을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집권

이전 쏘련이 망하기 시작한것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집권하였을 때부터입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당건설의 원칙을 줴버리고 당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쏘련공산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하여 떠들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꼬스모뽈리찌즘을 받아들이였습니다. 꼬스모뽈리찌즘은 세계주의이라는 말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꼬스모뽈리찌즘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리용하였습니다. 쏘련공산당은 쓰딸린이 집권하고있을 때에는 꼬스모뽈리찌즘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쓰딸린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꼬스모뽈리찌즘을 들고나오자 벌써 그것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평화적이행》전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을 감촉한것 같습니다. 쓰딸린의 제자의 한사람이였던 쥬다노브는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쏘련의 문학예술분야에서 꼬스모뽈리찌즘의 경향이 나타나자 작가, 예술인들과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전 쏘련공산당지도자들이 들고나온 《새로운 사고방식》은 투항주

의적사고방식이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협조하면서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들고나온 《새로운 사고방식》의 내용이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협조하면서 함께 살아나가겠다는것은 결국 그들에게 투항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언제 가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독점자본주의라는것은 레닌이 내놓은 명제입니다. 독점자본에 기초하고있는 제국주의와 투쟁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는 길로 계속 나가기마련입니다. 그런데 쏘련공산당지도자들이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들과의 협조를 설교하다보니 결국 쏘련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망하게 되였습니다. 70여년동안이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쏘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쏘련을 망하게 한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는 공산주의자의 체면은 고사하고 민족적량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애국주의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쏘련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은 련맹을 해체하고 이제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대로 하고있습니다.

쏘련은 쓰딸린이 서거한 다음부터 수정주의를 하였기때문에 망하였습니다. 쏘련은 땅도 세계륙지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인구도 2억 9 000만명이나 되는 큰 나라였으며 1,800만명이나 되는 당원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주의건설도 70년나마 하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것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쏘련당은 70여년의 사회주의건설력사를 가지고있었지만 관료주의를 부리고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다보니 그들이 돈만 알게 되였고 레닌주의를 고수하려 할 대신 돈만 벌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지 않고 돈과 자가용자동차, 별장만 알게 만들다보니 결국 망하고말았습니다.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하게 된것은 인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은것과도 관련되여있습니다.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은 인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쏘련에서는 1950년대중엽에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부터 사상교양사업을 다 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선전한것이 아니라 돈과 자가용승용차, 별장에 대해서만 떠들어댔습니다. 쏘련에서 한 30년동안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다보니 인민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게 되였으며 그래서 결국 쏘련이 망하게 되였습니다.

사대주의, 대국숭배주의를 한 후과

지난날 쏘련의 지도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천정을 쳐다보면서 주관주의, 관료주의적으로 로선을 세우고 내리먹였습니다. 당의 로선은 인민들이 찬성하고 지지하여야지 인민들이 반대하면 실현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인민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수정주의를 하고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인민대중과 리탈되다보니 70여년동안 혁명을 해온 쏘련이 망하고말았습니다. 쏘련은 흐루쑈브시기부터 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흐루쑈브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줴버렸습니다.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 원인은 첫째로, 그 나라 지도자들이 사대주의, 대국숭배주의를 한데 있습니다.

지난날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은 쏘련에서 《아》하면 같이 《아》하고 《베》하면 같이《베》하였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모든것을 쏘련이 하는대로 하였습니다. 이전 민주독일에서는 쏘련에 대한 숭배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모스크바에 비가 내린다고 하면 베를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산을 쓰고다닌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 나라 인민들이 자기 당지도부가 사대주의를 하는데 대하여 비판하는 말이였습니다.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쏘련을 숭배하면서 모든것을 쏘련식으로 하다보니 결국

망하고말았습니다. 쏘련에서 《개편》을 하면 하였지 무엇때문에 자기들도 맹목적으로 《개편》놀음을 벌리겠습니까. 이전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모든것을 쏘련식으로 하게 된것은 쏘련군대가 그 나라들을 해방하여준것과 많이 관련되여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해방하지 못하였습니다. 쏘련군대가 그 나라들을 해방한 다음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던 사람들을 모아다 정권의 자리에 올려놓다보니 그들이 쏘련을 숭배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전 쏘련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자기와 같이 합창을 하지 않으면 나쁘다고 하였으며 사회주의원칙, 국제주의적원칙에서 리탈한다고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흐루쑈브가 나에게 조선도 쎄브에 들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반대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쎄브에 들지 않더라도 자력갱생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면 그것이 곧 국제주의에 충실한것이 아닌가, 우리가 쏘련에 가서 돈을 달라고 빌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쏘련의 부담도 덜어주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후부터 쏘련사람들은 우리를 경원시하였습니다. 지난날 쏘련에서는 5.1 절기념일이나 사회주의 10 월혁명기념일때에 《위대한 사회주의협동체 만세》라는 구호를 내걸군하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협동체는 쎄브에 든 사회주의나라들의 협동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이 쎄브성원국이 아닌 사회주의나라들은 만세를 부르는 대상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한번은 우리가 쏘련사람들에게 《위대한 사회주의협동체 만세》라는 구호를 부르는것은 옳지 않다, 만세를 부르려면 사회주의국가들 만세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는 쎄브에 들지 않았지만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고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사대주의를 하면서 쎄브에 든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은 다 망하였지만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쎄브에 들지 않은 우리는 여전히 건전하

게 살아있습니다.

동구라파나라들에서는 또한 집권자들이 사회주의적요구와 인민들의 리익에 어긋나게 관료주의를 부렸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는 최대의 금물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개인경리로 되여있으므로 당국자들이 관료주의를 부려도 경제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는 집단경리이기때문에 국가지도일군들이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부리면 경제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뿐아니라 집권자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인민들의 리익에 맞지 않는것을 내리먹이면 인민들로부터 리탈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군들이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주관주의가 자라면 관료주의가 됩니다. 동구라파나라들에서는 집권자들이 관료주의를 부렸기때문에 사회주의정권이 무너지게 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 원인은 둘째로, 그 나라 지도자들이 관료주의를 혹심하게 부린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지도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안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과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때문에 국가통치자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정치를 잘못하여도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크게 지장이 없이 돈벌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기때문에 지도일군들이 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알아보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은 군중속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사무실천정이나 모스크바를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기의 주관적의사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료주의적으로 내리먹이군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민들과 리탈되게 되였으며 나

중에는 사회주의를 망쳐먹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이전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사대주의적, 관료주의적오유로 하여 그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망한것이지 결코 사회주의제도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제도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식대로 하는것입니다.

…

혁명은 누가 선물하지 않습니다. 혁명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 투쟁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이전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것은 그 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식대로 혁명을 한것이 아니라 사대주의에 물젖어 남에게 의존하여 혁명을 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전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속에 쏘련에 대한 사대주의가 매우 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나 다 쏘련이 하는대로 따라하였으며 모스크바의 지시를 무턱대고 받아물었습니다. 동구라파나라 지도자들은 쏘련의 본을 따면서 관료주의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인민들의 의사에 맞게 일하지 않고 관료화되다보니 인민들과 리탈되였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권자들이 관료주의를 부려도 별일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권자들이 아무리 관료주의를 부려도 그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집권자들이 관료주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돈을 버는 사람은 돈만 벌면 그만이고 착취자는 착취자대로,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남아있기마련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지도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안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도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후과가 매우 큽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을 위한 사회인것만큼 지도자들이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인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인민들이 어떻게 일하고 사는가 하는것을 알아보고 인민들이 바라는대로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전 쏘련에서는 사회주의 10 월혁명기념일이나 5.1 절기념일 때 《위대한 사회주의협동체 만세》라는 구호를 불렀는데 사회주의협동체란 쎄브에 든 나라들의 협동체라는 뜻이였으므로 쎄브에 들지 않은 사회주의나라는 만세를 부르는 대상에서 빼놓았습니다. 쎄브에는 이전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다 들고 몽골도 들었지만 우리 나라는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인가 내가 흐루쑈브를 만난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조선도 쎄브에 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우리 나라가 쏘련과 동맹조약을 맺었으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쎄브에 들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후부터 쏘련의 지도자들 은 우리 나라를 셈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쎄브에서는 계획을 세워 성원국들에 내리먹이였으며 쎄브성원국들은 쎄브에서 일하라는대로 해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쎄브에 들면 거기에서 건설은 얼마만큼 하고 전기는 얼마만큼 생산하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 우리에게 내리먹이기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었습니다. 쎄브성원국들은 극장 같은것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쎄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을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극장이 많은데 그 많은 극장을 쎄브의 승인을 받아 지으려 했더라면 아마 하나도 짓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왔는데 우리가 쎄브에 들었더라면 거기에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돈도 대주지 않았을것입니다. 쎄브에 들면 결국 우리가 쎄브에 매워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쏘련이 만들어놓은 쎄브

에 매워 살면 어떻게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쎄브에 들었던 이전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은 이름만 쏘련의 가맹공화국이 아니였지 실지로는 쏘련의 가맹공화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전 쏘련의 집권자들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도 소용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이행》전략에 따라 총포소리없는 전쟁을 벌려놓고 사회주의를 공격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운동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망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후퇴하고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적들에게 투항하고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운동은 시련을 겪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최근년간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에 의하여 쏘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다 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본주의나라 공산당들에서 동요하는 현상들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당은 당의 명칭을 고쳤고 또 어떤 당은 공산주의구호를 줴버렸으며 지어 어떤 당은 자기 조직을 해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틴미주에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현상들이 얼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라틴미주에서 꾸바공산당의 영향밑에 사회주의운동이 전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3) 사회주의재건운동

1992 년 4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킬데 대한 선언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여전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인류의 지향은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시고 세계 진보적인사들과 만나신 기회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재건하고 그 운동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평양선언의 발표

지난해(1992 년) 4 월에 나의 생일 80 돐을 맞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정당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이 평양에 모인 기회에 협의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킬데 대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였습니다. 평양선언을 발표한 목적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후퇴하던 상태를 정지시키고 사회주의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데 있습니다. 평양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거의 1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나라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는 자기들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복귀한데 대하여 후회하고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본주의로 복귀한탓으로 실업자가 되고 거지신세가 되였습니다. 자본주의로 복귀하면 미국이 많은 원조를 줄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아무것도 준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회주의운동은 좌절에서 벗어나 점차 수습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운동은 후퇴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앞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재건되고있으며 라틴미주와 아세아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숨을 돌려가지고 다시 전진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회주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다 망했다고 하지만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사회주의를 재생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때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단결하여 다시 발동을 걸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을 필요없는 모델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그 어떤 모델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매개 나라의 실정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매개 나라의 실정에 다 맞는 처방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 맑스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창조적학설입니다. 맑스주의를 교조적으로 대하는데 대하여 레닌도 반대하였고 쓰딸린도 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 당들이 다 자주적립장에서 자기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조선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여야 하고 스웨리예는 스웨리예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우기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매개 나라 당들은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3)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은 특기할만하다.

지나온 20 세기는 세계적범위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장성강화되고 자주화운동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난 세기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은 승승장구하는 쁠럭불가담운동과 세계의 자주화운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그것을 멈추어세우거나 부정말살하지는 못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과 세계의 자주화운동이 곡절과 진통을 이겨내고 자기의 건전한 발전을 계속하게 된데는 세계혁명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을 만나 담화를 나누시면서 쁠럭불가담운동과 세계자주화운동의 강화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제안들과 사상리론들을 내놓으시였다.

그 제안들과 사상리론들에는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저지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세계정세발전에서의 쁠럭불가담운동이 노는 역할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적추세를 반영하여 력사무대에 등장한 쁠럭불가담운동은 지난 기간 세계혁명발전과 국제정치생활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뿔럭불가담운동은 세계를 뿔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렬강들의 집요한 시도를 견결히 배격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지난 기간 뿔럭불가담운동은 인민들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압박받는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고 국제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막으며 국제문제들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반제자주를 위한 뿔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은 국제정세발전과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뿔럭불가담운동은 날을 따라 더욱더 확대강화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세계의 광활한 령토와 많은 인구를 망라하고있고 원료와 연료의 무기를 가지고있는 뿔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을 꼼짝못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한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뿔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두개의 큰 군사뿔럭이 대치하고있는데 뿔럭불가담운동은 뿔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모든 군사뿔럭을 해체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뿔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 이 운동안에 더 많은 나라들이 들어오면 서로 대치하고있는 동서군사뿔럭은 아무런 의의도 없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뿔럭불가담운동이 모든 군사뿔럭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외국군사기지를 철폐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며 새로운 세계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국제분쟁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세계인민들이 또다시 전

쟁의 참화를 입지 않게 할수 있으며 인민들이 자주적인 나라에서 평화적으로 잘 살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제 3 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을 광범히 벌리고있는데 이것도 세계평화를 고수하고 긴장한 국제정세를 완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폭넓은 국제적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반제자주력량은 결정적으로 강화되고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여러가지 국제문제들이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렬강들이 전횡을 일삼으며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던 낡은 질서들이 점차 무너져가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지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반제반식민주의의 튼튼한 성새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는 위력한 운동이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세력에 대치하고있는 반제반식민주의의 튼튼한 성새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이 나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침략과 간섭을 계속 하고있으며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착취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제국주

의자들사이에는 의연히 심각한 모순이 있으며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략탈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며 국제문제들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제 3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 3 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이며 사회주의력량의 믿음직한 동맹군입니다.

제 3 세계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이 나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략탈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침략하고 략탈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3 세계나라들과 제국주의자들사이에는 의연히 심각한 모순이 있으며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오늘 제 3 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모두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고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을 쟁취한 제 3 세계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간섭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제 3 세계인민들은 사회주의력량의 믿음직한 동맹자입니다.

뻘럭불가담운동대렬에는 자주성을 요구하는 제 3 세계나라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혁명적인 나라들이 집결되여있습니다. 뻘럭불가담운동대렬에 혁명하는 나라들이 많이 들어가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반제자주는 뻘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 근본원칙

반제자주는 뻘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입니다.

오늘의 정세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거나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여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수 없습니다.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가짜《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반제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국제적인 반제전선을 형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말살하고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혁명련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세계반제력량을 이루고있는 진정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제 3 세계나라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운동이 국제적규모에서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제국주의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집단

적으로 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평화의 길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제 3 세계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제3세계인민들의 재부를 략탈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 3 세계인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의 옹호자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며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 3 세계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성과적으로 허물어버리는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

단결과 협조의 강화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떤 제국주의와도 싸워 승리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낡은 국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 착취와 략탈의 주요한 공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낡은 국제질서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고있으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부원을 략탈하고있다. 낡은 국제질서들을 없애고 공정한 새 국제질서를 세워 제국주의자들이 더는 국제무대에

서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뽈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뽈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뽈럭불가담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능히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뽈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촉진하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지금 제3세계나라들가운데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알제리도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고 말가슈도 사회주의길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단결하여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뽈럭불가담운동대렬안에는 역시 난관도 있습니다.

뽈럭불가담나라들은 대렬안에 조성된 모든 난관들을 박차고 뽈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주성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더 많은 나라들을 뽈럭불가담운동대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